槐雲칼럼

선장 없는 배가 된 대한민국

- 연초부터 밀어닥친 미일중 삼각파고 -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최순실 사건이후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처지가되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다.

나라 안에서는 촛불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법치(法治)와 시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잃고 있고, 국회는 정부위에서 군림하여, 오직 정권탈취를 위한 정쟁에 휩싸여 있고 벌써부터 대권에 올인하고 있다. 모든 언론들은 중심을 잃고 사회의 공기(公器)와 목탁(木鐸)의 사명을 망각하고 무관(無冠)의 제왕(帝王)인양 24시간 최순실 비리 캐기에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갑자기 부모를 여윈 자식들처럼 목표를 잃고 방향되고 있다.

이에 나라밖의 주변 강대국들도 우 리나라를 무시하고 압박하기 시작하였 다. 우리의 최대우방국 미국은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 전에 신임 중국대사 와 일본대사는 임명했으나 주한대사임 명은 보류하고 있다. 이는 탄핵심판중 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리인을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중국도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류 연 예인 방송출연을 금지한 한한령(限韓 令)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보복을 확 대하고 있다. 일본도 1월 6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 치문제로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와 한 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 표하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槐雲 權 海 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시키기로 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미국의 미온 적 태도와 중국과 일본이 강수로 들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치권도 사분오열되어 이것을 최대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국내의 불안 정한 시일이 지속되면 북한의 김정은 도 더욱 강력한 대남위협과 사이버테 러를 포함한 각종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정에도 기둥역할을 하시던 부모가 갑자기 유고(有故)시 집안이 엉망인 것처럼 하물며 국가야 오직 하겠는가? 모든 국민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 나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우려야한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언론, 국민모두가 여야(與野)나 보수진보의 이념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 나리가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의 기로(岐路)에 서었다. 이런 격변기에 하루속히 정치권과 정부도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거국적인 합의를 통해 정치 외교, 경제전반에 대한 총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다.

특히 중국과 갈등의 핵심사항인 사 드배치는 북한의 핵. 미시일 위협에 대 비하기 위하여 작년 7월 발표한 국가 안보차원의 정책이다. 사드는 한미동 맹을 기초로 한 한미연합전력의 일환 으로 북한 핵.미사일 방어와 주한미군 의 안전을 위해서 미군의 예산으로 배 치하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한미간에 결정한 정부정책으로 쉽게변경하기 어렵다.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도 2015년 12월에 '불가역적 합의'로 어렵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대승적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해야한다. 지나간 과거사를 계속 주장하며 미래를 망치면 손해는 우리에게 돌아올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국내갈등을 잘 봉합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실추 된 외교채널을 조속히 복원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도 국가위기상황에서 정부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제 적 신뢰를 위해서도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한다. 국민들도 개인의 사욕과 불평불만을 과감히 버리고, 더 이상 정치싸움에 휘말린 각종 시위 참여도 자제하고 오직 조국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고 대아(大我)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

권성은(본명 權玉姬) (복야공파 36세)

특별기획

權氏烈傳®

民松 權寧禹

(지난호에 이어)

두 대도 마찬가지로 엔진을 덥혀 보내고 나니 이윽고 의정부에서 출발한 차가들어오기 시작했다. 버스회사를 인수해 '대원여객 '으로 이름을 고쳐 경영을 하면서 나는 직원들을 앞에 두고 수시로 당부했다. 나는 그 때 이미 운수업의 많은 것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배차, 정비, 부품등의 분야는 물론이고 버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당시 버스에는 기사외에 차장이 동승하면서 요금을 직접 받았다. 종로5가에서 의정부까지가 우리회사소속 버스의 로선이었는데, 내가 만나본 차장들이나 기사들의 얼굴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애로사항이 뭐니?" 한 여자차장(안내양)에게 물었다. "사람대접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들(여차장) 을 인간이하로 대해요."

그 당시에는 차장들의 횡령이 비일비재 해서 검색한다며 수시로 옷을 벗기고 몸 을 수색해 돈을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있 던 시절이었다. 차장들의 인격모독이 아 무렇지도 않게 자행된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장들의 불만 은 곧 회사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의심받는 차장들이 버스회사 수 익금을 제대로 챙겨줄리 없기 때문이다.

나는 복지시설부터 지었다. 기숙사를 지어서 회사부근의 옥상이나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차장들을 모두 입주시켰다. 쾌 적한 시설에서 먹고 자며 근무하게 해주 니 직원들이 회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 지기 시작했다.

"우리기숙사 시설이 너무 좋아. 전에 살던 방과는 비교가 안돼."

"월세를 안내도 되니까 나는 그게 좋다."

그 후 놀랍게도 우리회사는 횡령이 없어졌다. 그 덕에 다른 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수입이 올라갔다.

나의 기본적인 사업관은 그 때 싹텄다.



회사 구성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해 주면 그들 역시 인간적으로 정직하게 근무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된 것이다. 이사실이 부각되어 나는 나중에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기본적인 것에 투자하면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조이다. 그 후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새 버스를 사들였다. 그간 버스회사의 수익을 갉아먹는 건 낡은 버스였다. 한번 고장이나면 운행하지 못한 손해에다 고장난 버스에 탔던 승객들이 안좋은 소문을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까지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런와중에 회사를 인수한 지 4개월만에 시내버스요금이 5원 올랐다. 버스요금 인상은 우리사업이 승승장구 번창해 갈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조만간에 버스업계의 인력 난이 올 것을 예감했다. 1978년 경기여객 을 인수한 뒤 나는 우선 조수제를 폐지했 다. 조수가 버스한대에 한명씩 붙어 다니 는 것은 버스회사경영에 큰 손실이었다.

또한 회사결재란을 줄여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조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과감하게 줄여나 갔고 함께하는 회사직원들에게는 업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 주었다.

동시에 나는 늘 경쟁사를 인수할 궁리를 했다. 우리회사가 결정적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은 1984년도에 '남일여객'을 사들이면서부터였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게된 것이다.

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원가의 절감을 이룰 수 있었다.

안전운행은 버스회사의 운명이 걸린 핵 심사안이다. 승객에게 고작 10원, 20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데, 사고가 한번 나면 수백, 수천만원이 깨지는 판국



기었다.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우리회사 경영진도 그게 늘 골치였다. 이리저리중지를 모은 결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었다. 매월 급여 지급일, 부인들을한자리에 모아서 급여봉투와 선물로 준비한 과자봉투를 함께 건넸다. 운수업계최초로 기사들의 월급을 부인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월급날 봉투째 기사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대개 그 돈을 고스란히 들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노름 등을 하며돈을 써 버리기 일쑤였다. 그렇게 되니 부부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고 싸우고출근한 기사가 안전운행을 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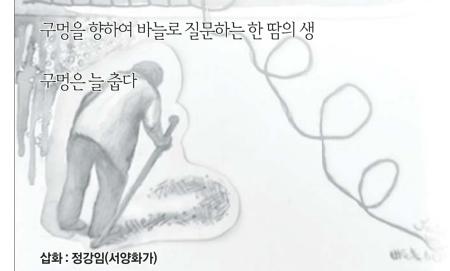


いきを스シス1[buttonhole stitch]

이 길은 올 풀린 기억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팔순의 노모 허리 꺾어 기역자로 걷는 길이다 따라서 이 길은 더 이상 직선으로 갈 수 없다 불안에서 탄생한 그은 처음 나온 구멍 근처에서 자주 멈춘다 구멍은 길 위에서 흔들리는 실밥 같은 손짓을 안으로 쟁인다 늘 뾰족한 시간은 구멍을 향하여 한 땀 길 떠난다 마지막 좁은 바늘 길 둥글게 휘돌아 간다

기역에서 기억으로 난 길이 춥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멈출 수 없는 매듭의 위태로운 실의 시간을 허리 굽은 늙은 겨울이 걸어간다 최후의 바늘이 단추의 목을 감싸는 순간 길은 기억으로 둥글게 말린다

그러므로 길 위에서 바늘의 행방을 묻지 말 것, 마지막 길을 떠나는 허기진 물음표들, 억압과 자유,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언제나



※ 버튼홀 스티치 [buttonhole stitch]

주로 단춧구멍이나 가장자리의 실이 풀리

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휘갑쳐 뜨는 방법 -광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문화

예술교육기획학과 졸업(예정)

-통일시인 이기형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고양시바른선거시민모임 사무처장 역임

소천 권태호

(안동생 1903년 ~ 1972년)

1903년 9월 16일 기독교의 목사인 아버지 권중한(權重漢)의 2남2너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안동교회의 선교사 부인권애라 즉 엘라 맥클룽(Ella McClung)에게 오르간과 피아노를 배웠다. 1917년 안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일본 나가노(中野)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1930년에 졸업했다.

1928년 5월 12일 YMCA강당에서 독창 회를 열었고, 7월 10일 청년회관에서 권 태호독창회를 열었다. 1929년부터 발매된 빅타음반에 창작 가곡 및 외국 가곡을 취 입하였다. 졸업 후 1930년 동경에서 제2회



소천 권태호 음악관(경주소재).

독창회를 열었다. 1930년 귀국해 1940년까지 평양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 등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중앙보육학교(中央保育學校)에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눈꽃새"·"봄 나들이"·"조선 아기의 노래" 등 많은 동요를 작곡하였다. 그 후 동경의일본음악학교(日本音樂學校)의 교수로 있다가 귀국, 대구에 정착하였다.

일본 유학 중 제1회 독창회를 열었고,



소천 권태호(가운데).

졸업 후 1930년 동경에서 제2회 독창회를 개최하였다. 숭실전문학교·광성학교·중앙보육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중앙보육학교 재식 때 그는 "봄나들이"(윤석중 작시) 등 많은 동요를 작곡하였다. '中央' (1934) 8호에서 일본음악학교의 성악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귀국하여평양광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소개됐다.

노동법해설

휴가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1. 휴가의 종류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휴가는 ① 태아검진기간, ② 연차휴가, ③ 생리휴가, ④ 출산전후휴가, ⑤ 배우자 출산휴가, ⑥ 육아휴지, ⑦ 가정돌봄휴직이 있고, 약정휴가는 하계휴가, 경조사 휴가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휴가 중 이번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약정휴가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는 부여의무, 부여조건, 부여일수 등이 정해져 있는 법정휴가이고, 임금 손실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이며, 출근율을 요건으로 하는 보상적 휴가이다.

(2) 연혁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와 함께 연차휴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89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으며,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월차

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흡수했다. 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도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휴가사용촉진 조치의

요건을 강화했다. (3) 휴가일수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3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 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총 25일 한도로 한다.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연차휴가일수〉

근속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9년	15년	19년	21년이상
휴가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노무 관리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4) 휴가 부여 시기 및 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



권오일(복야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기업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권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만약에 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대체사용을 인정하면 대체된 결근일은 연차유급휴가에 해당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80%이상 출근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된다.

(5)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지급 문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도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도 소멸된다.

3.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게 되면 연 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된다.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 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약정휴가

경조사 등 약정휴가의 부여 조건, 부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 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약정휴가는 결혼, 상례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부여되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